

實學時代의 語彙資料集 刊行 歷史

洪 允 杓

(단국대 교수·국어학)

1. 序 言

言衆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는 一次的인 관심은 單語나 語彙였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어는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다. 變形生·成理論이 대두된 이후 언어의 기본 단위가 音聲으로부터 文章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언어 소통의 一次的인 요소는 단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국어 중에서 특히 단어나 어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성이나 문장은 학문적인 이론을 접근시켜 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지 모르나, 言衆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언어 지식은 그 언어의 단어나 어휘에 있기 때문이다.

國語學史에서 訓民正音의 창제로, 훈민정음에 그 관심이 경도되어 있었던 나머지 國語語彙에 대한 研究史는 관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어휘에 대한 관심의 결정체인 語彙集들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어휘집을 어휘 그 자체의 연구 자료로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音韻論이나 形態論의 연구 자료로서만 취급해 왔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국어 어휘집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또 한 이유는 국어 연구의 대상 시기가 15세기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목할 만한 어휘집의 간행이 없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휘집들은 주로 그 이후에 등장하며, 또한 음운론 등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이론이 마련되어 있었던 데 반해 어휘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대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 어휘집의 편찬은 국어에 대한 관심 내지는 연구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어휘집에는 音韻, 文法 등의 언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 어휘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편찬 당시의 국어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이 어휘집 또는 이 어휘집에 등재된 어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당연히 예견되었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개 어느 세기든 세기 말에는 이러한 관심, 즉 어휘집의 편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던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말의 ‘譯語類解’를 비롯하여, 18세기 말의 ‘方言類釋’, 19세기 말의 ‘國漢會語’를 비롯하여, 여러 國語辭典 등의 편찬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西洋에서도 18세기 말에 多言語辭典이 등장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도 그 현상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곧 사전으로 편찬되기 때문이다. 20세기 말을 맞이하면서 국내에서 국어 사전의 편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역사적인 필연의 결과로 보인다.

2. 語彙에 대한 接近 態度

언어는 언어학 그 자체의 研究理論이나 方法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것은 언어 연구의 방법론을 心理學이나 哲學 등의 다른 학문의 연구 방법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언어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시켜 가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하여 언어 연구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로 언어는 언어의 內的 構造에 의해서만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언어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도 언어의 內的 構造의 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는 다른 社會的 要素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또 변화를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文化的인 要素나, 政治·經濟 등의 사회적 요소와 지니는 관련성은 거의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언어의 변화는 언어 구조의 변화이고, 다른 요소들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운의 연구나 문법의 연구에서 이 주장은 수긍할 만

하다. 그러나 어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휘는 사회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휘는 한 社會의 文化的인 所産이다. 그래서 단어의 형태로부터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그 단어가 사용되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휘는 다른 문화적인 현상과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특히 單語形態의 변화나 의미의 변화가 단순히 음운론적인 규칙이나 단어 형성 규칙, 그리고 의미 변화의 규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개장국'이라는 단어가 '보신탕'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철탕' 등으로 변화해 온 과정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상 등에 대한 배경의 연구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實學時代와 國語語彙辭典의 編纂關係를 고찰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학시대의 음운 체계, 실학시대의 문법 체계 등으로의 고찰은 가능하지 않지만 어휘만은 '실학시대의 어휘 체계' 등의 연구는 가능한 것이다.

실학시대의 연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 시대를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출현된 국어 어휘 자료를 다루고, 특히 실학의 중심 시대라고 하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시대에 나온 국어 어휘 사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國語學史의 記述에서는 18~19세기를 實學的 學風時代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實學思想이 구체적으로 國語研究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도 이 시기에 辭書 또는 類書 또는 국어 어휘 자료집의 편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만을 밝히고 이것을 目錄化하는 데에 그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淸나라 實證學의 영향이 註釋學의 成果로 개선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제시하고만 있는 형편이다.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난 움직임은 그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어학사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19세기 말의 國語·國文運動도 19세기 말에 불현듯 솟아 오른 운동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外勢의 침입으로 인한 반동으로 일어난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 운동도 그 근저에는 오

래 전부터 우리 나라를 풍미해 오던 실학 운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의세의 침범으로 인한 국어 국문 운동은 이러한 실학 운동의 연장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실학 운동의 근본 사상과 국어 국문 운동의 근본 생각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實學時代의 國語 語彙 資料 編纂

엄밀히 말해서, 이 시대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 어휘 사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나온 사전들은 대부분이 漢字 및 기타 外國語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편찬된 類解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해서들은 후대에 출현된 국어 사전의 편찬에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해서들의 편찬을 국어 사전의 편찬과 연관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대부분의 국어 어휘 자료들은 국어에 그 초점을 두고 편찬된 것이 아니다. 주로 중국의 原典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原典이란 대부분이 中國의 문헌이었기 때문에 중국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 속의 文字, 單語, 固有名詞(人名, 地名, 國名 등), 古制度(制度, 職官 등), 故事成語, 風俗, 歲時 등의 사항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원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유해서 편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즉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訓蒙字會’, ‘類合’ 등과 같은 漢字에 대한 類書나 ‘老朴集覽’, ‘四聲通解’ 등과 같은 中國語에 대한 類書가, 17세기에는 ‘經書釋義’, ‘語錄解’ 등과 같은 經書에 대한 類書가, 17세기 말에서부터 18세기 말까지는 주로 ‘譯語類解’, ‘同文類解’, ‘蒙語類解’, ‘倭語類解’, ‘方言類釋’ 등과 같은 中國語를 비롯한 外國語에 대한 譯學의 類書가,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는 ‘物名考’, ‘物譜’, ‘才物譜’, ‘事類博解’ 등 物名에 대한 類書가 주로 편찬 刊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는 이 類書들이 집중적으로 편찬, 간행되거나 筆寫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왜냐 하면 이 시기가 곧 實學의 後期時代와 연관되고 있어서, 이 類書의 편찬이 實學思想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들 국어 어휘 자료집들이 변천하여 온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자료집들의 성격을 구명해 보도록 한다.¹⁾

(1) 漢字 및 中國語의 이해를 위한 資料

中國의 原典을 읽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해지는 것이 ‘千字文’ 등을 통한 漢字敎育이다. 그러나 이 ‘千字文’의 漢字는 그 檢索作業이 수월치 않고 또 同音異義語나 異音同義語들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이 漢字들을 類似한 部類로 묶어 檢索과 記憶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訓蒙字會’, ‘類合’ 등이 편찬되게 된다. 이 자료들이 국어 어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類合’은 漢字를 部別로 分類하여 排列하였지만 그 分門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眉巖 柳希春의 ‘新增類合’(1576년)은 數目, 天文, 衆色 등 27개의 分門으로 분류하여 漢字를 배열하고 있다. 崔世珍이 편찬한 ‘訓蒙字會’(1527년)는 ‘千字文’과 ‘類合’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인데, 天文, 地理, 花品 등 33개의 分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 ‘訓蒙字會’는 ‘千字文’과는 달리 4句의 漢詩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漢字를 物名을 중심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 ‘訓蒙字會’, ‘類合’은 한글로 註釋된 최초의 類書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글로 註釋된 자료로서 최초의 것은 漢字를 습득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漢字를 배우기 위한 類書들은 16세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세기 중엽까지는 이러한 종류의 문헌 편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지 ‘訓蒙字會’나 ‘類合’ 또는 ‘千字文’ 등을 重刊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이러한 편찬 경향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1856년에 鄭允容이 ‘訓蒙字會’의 뜻을 확장하여 字類를 늘려서 만든 ‘字類註釋’, 大溪 李承熙가 편찬한 ‘正蒙類語’(1884년), 黃應斗가 편찬한 ‘通學徑編’(1916년)을 비롯한 많은 문헌들이 편찬되고 있다.

부분적인 한글 註釋이지만 국어 어휘 자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서 ‘四聲通解’(1517년), ‘老朴集覽’(16세기로 추정) 등이 있다. ‘四聲通解’는 漢字를 字母順으로 배열하여 한글로 表音하고 자세한 字釋을 단 것이다. ‘老朴集覽’은 ‘老乞大’와 ‘朴通事’ 중에서 난해한 語句와 固有名

1) 이 부분은 줄고(1988, 114~118)을 요약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줄고(1985, 1988)을 참조할 것.

詞 등을 뽑아서 설명한 語彙集인데 一音節語에 대한 單字解와 多音節語에 대한 累字解로 字解를 하고 있어서 내용에 대한 類別分類가 아닌 漢字의 音節에 대한 분류인 것이다. 이 두 문헌은 中國語와 연관을 가지는 자료다.

(2) 經書의 이해를 위한 資料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곧 ‘三經四書釋義’(1609년)다. ‘經書釋義’는 退溪가 經書에 대한 諸家의 訓釋을 모아 證訂하고 아울러 門人들의 問辨을 연구하여 이것을 손수 기록하여 두었던 것을 後學들이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經書 중에서 難句를 택하여 그것을 漢字와 한글을 混用하여 解釋한 것이지만 그것을 類別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詩釋義’, ‘書釋義’, ‘周易釋義’, ‘大學釋義’, ‘中庸釋義’, ‘論語釋義’, ‘孟子釋義’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경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편찬된 자료 중 국어 어휘 자료를 보이는 것은 1657년에 간행된 ‘語錄解’이다. 이 ‘語錄解’는 鄭澣이 편찬한 것으로서 語錄을 註解한 것이다. 이 ‘語錄解’는 특히 退溪와 眉巖의 訓을 달았는데 鄭澣은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동기가 ‘朱子語類’를 읽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跋文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도 ‘老朴集覽’과 마찬가지로 漢字의 音節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3) 譯學 關係의 資料

譯學 관계의 類書 중 제일 먼저인 것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中國의 名物 등을 한글로 翻譯하여 刊行하였다는 ‘譯語指南’으로 보인다. 徐居正의 ‘四佳文集’에 보이는 譯語指南 序를 보면 中國의 名物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61門으로 분류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이후에 나온 類書들은 司譯院 譯學書의 類解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곧 ‘譯語類解’(1690년), ‘同文類解’(1748년), ‘蒙語類解’(1768년), ‘倭語類解’(18세기 말?)들이 그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漢語, 淸語, 蒙語, 倭語들의 外國語에 대한 對譯 類別辭書로서 漢字語를 標題項으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 한글로 註釋을 붙이고 이 單語들에 대한 各言語를 한글로 轉寫하여 놓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類別로 분류하여 편찬되었다. 또한 1778년에는 ‘方言類釋’이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上記의 네 가지 類書들을 集大成하여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古今釋林’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司譯院 譯學書를 그대로 다시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筆寫期를 알 수 없지만 그 한글 표기법으로 보아 19세기로 추정되는 '漢語抄'가 있다. 이러한 類解類 譯學書의 出現時期는 17세기 말에서부터 18세기를 걸쳐고 다시 19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譯學書의 출현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이후에 國防과 外交의 必要性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4) 物名에 대한 資料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치는 동안에 한글로 註釋을 해놓은 類書들은 전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李成之의 '才物譜'(1798년), 沈老淳의 外祖父가 편찬한 것을 金炳圭가 筆寫한 '事類博解'(1855년 筆寫), 柳僖의 '物名考'(1820년 완성?), 茶山の '竹欄物名攷'(일반적으로 '物名攷' 또는 '物名考'라 부른다)와 '雅言覺非'(1819년), 張混의 '蒙諭篇'(1806년), 星湖 李翼의 從孫인 李哲煥과 李哲煥의 아들인 李載威가 편찬한 '物譜'(1802년), 李義鳳이 편찬한 '古今釋林'(1789년), 丁若銓의 '岷山魚譜'(1814년), 洪命福 등이 편찬한 '方言類釋'('方言集釋'이라고도 한다), 鄭允容의 '字類註釋'(1856년), 李成之의 '才物譜'를 增補한 編者 未詳의 '廣才物譜'(19세기로 추정) 등이 이 때에 출현한다. 이들 중 '古今釋林', '方言類釋'과, '字類註釋'을 제외하고는 모두 物名에 대한 類書라는 점이 그 특징인 것이다. 이 이외에도 1890년에 현재의 井邑地域에서 柳雨日이란 사람이 筆寫한 '物名纂'이란 문헌도 전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위 '名物度數'의 學이 성립되게 된다. 名物度數란 物件의 이름과 制度를 말한다. 名物度數에서 名物이란 品物의 이름과 性質을 말하며 度數란 원래 溫度, 角度, 回數 등을 말하지만 넓게는 정해진 制度, 法度, 術數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名物度數 學이란 物件과 制度에 관한 學問을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이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名物과 度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 이 名物度數의 중요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예컨대 李成之의 '才物譜'에 보이는 允秋 金庭堅의 序, '五洲衍文長箋數稿'의 序, '物譜'의 序 등에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才物譜' 등은 名物과 度數에 대한 類書라고 한다면, '物名考'는 名物에 관한 類書라는 점이다.

4. 語彙辭典의 歷史의 흐름

16세기에 漢字 및 中國語에 대한 類書가 간행되는 이유로서 訓民正音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즉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문자로 중국 漢字의 음과 釋을 설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를 이해하기 위한 일은 16세기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 심지어는 20세기까지도 계속된다. 그런데 17세기로부터 19세기 중기까지는 기존의 ‘千字文’, ‘訓蒙字會’, ‘類合’ 등을 重刊하여 이에 대체하고 있는 반면에 19세기 중기 이후 및 20세기 초에 오면, 이러한 보편적인 漢字學習書 이외에 새로운 한자 학습서의 간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千字文이라고 하더라도 周興嗣의 천자문 이외에 중국의 역사를 천자문으로 엮은 ‘歷代千字文’(1911), 우리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朝鮮歷史千字文’(1928) 등이 출현한다. 그리고 漢字의 釋과 음이 달려 있지 않은 천자문도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千字文’ 이외에 ‘蒙學二千字’, ‘兒學篇’, ‘通學徑篇’, ‘字類註釋’ 등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開化期 때의 學部 敎科書에도, 그리고 日帝時代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한자 학습서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면서 지금까지 습득한 한자가 시대에 뒤떨어지므로 해서 이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經書에 대한 한글주석본 유서도 그 간행의 변천이 나타난다. 특히 ‘語錄解’의 간행 이후, 이 ‘語錄解’는 아마도 ‘物名考’와 함께 必讀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物名考’의 筆寫本과 함께 이 ‘語錄解’의 筆寫本이 무척이나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중국의 문헌이 들어오면서 白話文으로 쓰인 중국의 小說을 읽기 위하여 ‘西遊記語錄’, ‘水滸誌語錄’, ‘西廂記語錄’, ‘三國誌語錄’ 등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후에 白斗鋪이 이것을 묶어 ‘語錄總覽’이라는 책으로 간행하였다. 이 語錄解들의 간행과 이들 中國本 小說의 諺解도 이루어져, 新式活字本 小說들이 간행된 것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도 새로운 외국의 문화에 접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학시대에 괄목할 만한 사실은 譯學關係의 類解書들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역학 관계 유해서인 ‘譯語類解’, ‘蒙語類解’, ‘同文類解’, ‘漢清文鑑’, ‘倭語類解’, ‘漢語抄’, ‘方言類釋’ 등이

간행 또는 편찬된 것은 이 시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譯官들에 의해서 편찬된 이들 對譯 外國語 語彙辭典들은 그 對象語가 漢語, 蒙古語, 滿洲語, 日本語의 四學에 관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는 外國 宣教師들에 의한 韓國語-外國語, 또는 外國語-韓國語 辭典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對外關係를 보여 주는 것이다.

中國과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나 한자·한문에 대한 對譯語彙辭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가 멸망하고 淸나라가 대두된 이래 다시 滿洲語 對譯辭典이 등장하고, 다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日本語 對譯辭典이 등장한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西洋과의 관계로 인하여 英語-韓國語, 韓國語-英語, 佛語-韓國語, 韓國語-佛語 등의 사전이 등장한다. 특히 獨逸語-韓國語의 대역 어휘 사전이 먼저 등장하지 않은 것도 우리 나라와 독일의 그 당시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譯科榜目에 보이는 譯科 合格者數에서도 발견된다.²⁾ 譯科의 額數가 式年, 增廣 모두 19명이 定員인데, 대체로 16세기와 17세기 전반까지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점점 액수에 가까워지고, 18세기, 19세기 전반까지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다가 개항 무렵부터는 入格者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의 70년도 전반까지는 1회의 漢學 譯官 입격자는 대개 13명 정도이었지만 1874년 이후부터는 대개 25명~35명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倭學 譯官의 入格者數도 19세기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譯科의 實施回數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1498년부터 1891년까지 式年試, 增廣試를 합쳐 총 169회에, 入格者는 모두 2,937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漢學譯官은 1,863명, 倭學譯官이 342명, 淸學譯官이 317명, 蒙學譯官이 278명(未詳 137명)인 점으로 보아서 조선조에서 對外關係의 重點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³⁾ 역학 관계 유서 중 漢語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다른 문헌에 인용된 考據諸書 중에도 '譯語類解'를 제일 많이 든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로써 설명

2) 여기에 드는 자료는 李成茂·崔珍玉·金喜福(1990)에 들어 있는 崔珍玉 교수의 '朝鮮時代 雜科 設行과 入格者 分析'에 의한다.

3) 崔珍玉 교수는 개항 후의 증가 현상을 외국과의 교류 증대로 인한 외국어 해득자의 수요 증가 현상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과거제의 문란과 봉건 체제 말기의 국가 기강의 해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才物譜’類의 百科事典의 등장이다. 天譜, 地譜, 人譜, 物譜에 해당하는 사항을 한자로 써 놓고 한글로 註釋을 달아 놓은 것이 ‘才物譜’類는 註釋이 한문으로 된 부분과 한글로 된 부분이 있다. 한글로 주석해 놓은 부분은 다양한 국어 어휘를 보이고 있어서 중요한 국어 어휘 자료들이 된다. 이 어휘집들은 譯語類解를 비롯한 譯學類의 類解書들보다 더 다양한 국어 어휘들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한 類에 속한 항목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들 天譜, 地譜, 人譜 중에서 物譜만을 가려 뽑은 ‘物名考’가 실학시대의 후반에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 왔던 것으로서 손꼽히는 것은 柳僖의 ‘物名考’와 茶山の ‘物名考’이다. 이 ‘物名考’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듯하다. ‘物名考’의 편찬자들도 다른 사람이 편찬한 ‘物名考’류를 참조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茶山이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竹欄物名考’에는 李哲煥의 ‘物名考’(현재 ‘物譜’로 알려져 있다)를 참조한 흔적이 보인다.

簞 蟲 및 例軒物名考曰 빗즈기 (例軒은 李哲煥의 호이다)

‘物名考’와 같은 어휘 자료집의 편찬은 지나간 시기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졌던 중국의 물명을 고증하여 바로잡고, 또한 우리 국어의 물명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한 데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융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결과로 국어의 어휘량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사전의 편찬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어 어휘집은 엄밀하게 말해서 19세기 말의 ‘國漢會語’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어휘집은 대부분이 國語를 標題語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外國語나 外國文字를 표제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편찬된 국어사전의 시초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하여 편찬된 국어사전의 효시는 ‘國漢會語’이다.⁴⁾ 그리고 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국어 자료집은 이 이외에도 ‘東言考略’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아 국어 어휘집 편찬의 흐름을 보면 한자나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한자교습서의 편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자를 이해한 후에 읽게 된 經書에 대한 註釋書 내지 類解書들이 등장하게

4) ‘國漢會語’에 대해서는 줄고(1986)를 참조할 것.

되고, 이어서 한자나 중국어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四學에 관련된 유해사의 편찬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四學과 연관된 유해서들은 東洋의 言語에 대한 유해서들이었다. 이어서 등장한 것이 외국인에 의하여 편찬된 西洋의 언어, 즉 英語, 佛語 등의 어휘집 내지는 사전이 편찬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한 國語辭典의 편찬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국어사전의 편찬은 이러한 무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싹터 왔고, 이러한 경험과 문화의 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알려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어휘집들의 편찬은 국어 단어 또는 국어 어휘라는 매체를 통하여 외국 문자나 외국어를 습득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第一次의 인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二重語辭典으로부터 출발하여 多重語辭典으로, 그리고 다시 二重語辭典으로, 마지막에는 單一語辭典으로 변천해 가도록 하였다. 즉 東洋語의 二重語辭典으로부터 東洋語의 多重語辭典으로, 그리고 西洋語의 二重語辭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標題項과 풀이말을 국어로 하는 單一語辭典으로의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5. 國語語彙集의 體裁

국어 어휘집의 標題項의 排列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意味領域別로 분류한 것이었다. 이것은 표제항들을 단어의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어휘의 개념으로서 인식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 즉 개개의 단어보다는 일정한 單語의 集合으로서 단어들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표제항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어로서보다는 文章이나 節, 또는 句로서 인식될 것이 무척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를 하나의 언어 단위로써보다는 실생활의 행위 단위와 연관시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⁵⁾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사전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語彙量이 적었음을 암시해 준다. 語彙의 量이 많아지면, 의미 영역별로

5) 실제로 국어 어휘집의 項目排列順序를 보면 한 가지 일의 시작부터 일의 끝까지 거치는 과정의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方言類釋'을 들 수 있다.

배열한 단어들을 檢索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축적되면서 어휘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이 편찬한 서양의 對譯語彙辭典을 접하면서 국어의 어휘집도 곧 현대 국어사전과 마찬가지로 字母順의 分類方法에 의거하여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국어 어휘집을 살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물론 標題項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업적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⁶⁾ 여기에 서는 국어 어휘집들의 註釋項에 나타난 부분 중 국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도록 한다.

‘譯語類解’를 비롯한 유해서들은 그 標題項이 중국의 한자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주석란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아래에 ‘譯語類解’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1) “| |”의 표시를 한 것.

예 : 日蝕 | | (上 1a) 端午 | | (上 4a)

이것은 ‘日蝕’, ‘端午’란 漢字語가 국어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유어로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2) ‘| |’의 아래에 ‘하다’를 붙인 것.

예 : 慶賀 | | 하다 (上 11b) 中惡 | | 하다 (上 62b)

이 예는 ‘慶賀’, ‘中惡’이란 단어가 명사로서 존재하지 않고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漢字로 표시한 것.

예 : 天河 銀河 (上 1b) 抄白 傳書 白文 (上 11b)

이것은 국어에 ‘天河’란 단어는 없고 ‘銀河’란 한자어가 이미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銀河’의 漢字音은 한국식 한자음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抄白’이란 단어는 없으며 오히려 ‘傳言 하다’와 ‘白文’이란 한자어가 국어에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6) 어휘 자료집이나 사전의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鄭光(1978), 金敏洙(1986), 임지룡(1989) 등을 참조할 것.

(4) 漢字로 풀이하였으되 그 한자가 標題項의 漢字語順과 다른 것.

예 : 呈報單 報單呈하다

이 예는 중국의 한자어의 어순이 국어에 와서 바뀌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動詞로서만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5) '上同'이란 표시를 한 것.

예 : 日頭 : 日(上 1a) 太陽 上同(上 1a)

이것은 물론 '日'란 단어가 국어에 존재함을 알려 준다. 그러나 '太陽'이란 漢字語가 국어에 있었다는 정보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만약에 '太陽'이란 단어가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잡고 있고, 또 그 표제항의 위에 '日'란 풀이말이 없었다면 "[]"의 표시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이란 단어가 풀이말에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우리말로 풀이를 한 것.

예 : 母鷄·암닭(下 24b)

이것은 국어에 '암닭'이라는 단어가 존재함을 말한다. 아울러 이 풀이는 '母鷄'가 국어 단어로서는 성립되지 못함을 암시한다. 만약에 국어 단어에 '암닭'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母鷄'란 단어만 존재한다면 "[]"란 표시를 하였을 것이다.

(7) 현대어에서는 한자어로 쓰이는데 한글로 표시한 것.

예 : 木槿花 무궁화(下 39b)

이 예는 '무궁화'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의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자어도 한자로 써 놓은 경우와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한글로 표기한 예들은 이미 한자어로서보다는 고유어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즉 이 어휘 자료집의 편찬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국어 어휘로 정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무궁화'란 단어는 17세기 말 이전에 이미 국어 단어로서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 뒤에 편찬된 거의 모든 국어 어휘 자료집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上同'을 '同'이라고만 표시한 것들도 있지만, 그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몇개 들어 보이도록 한다(아래의 例는 茶山の 저작으로 보이는 ‘竹欄物名考’의 일례다).

胡瓜 외, 黃瓜 同, 靑瓜 同
瓦刀 11
澹采 紅蛤

이 ‘譯語類解’가 그 뒤의 국어 어휘 자료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는 각종의 어휘 자료집에 “譯書曰…”(또는 譯書云…) 등으로 표시해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때의 ‘譯書’는 주로 ‘譯語類解’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를 역시 ‘竹欄物名考’에서 그 일부만 들어 보도록 한다.

酸漿 쓰아리 譯書曰 승아
核桃 감인도 譯書曰胡桃
風領 휘항 譯書曰風遮
麩魚 국슈고기 同 譯書曰白魚 빙어

역어유해를 비롯한 어휘집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유어, 한자어 등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어휘집만으로는 그 확인이 쉽지 않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반증 자료는 한문 원문에 대한 언해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문 원문에 보이는 한자어가 언해문에 그대로 사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던 한자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해서에서 언해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쓴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국어로 정착된 한자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검토해 보면 ‘譯語類解’ 등의 언해서에서 표제어나 주석어로서 동시에 사용한 것들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實學時代 國語 語彙集의 特徵

실학시대의 국어 어휘집들은 그 이전에 편찬되었던 유서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어휘집들이 지니는 특징은 實學思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졌다는 점

이다. 즉 민족의 자주 정신의 발로가 나타나는 점이다. 이 민족주의적 사고는 심화되어 심지어 국수주의적 입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이 극명하게 나타난 어휘집을 든다면 아마도 ‘東言考略’일 것이다.

‘東言考略’은 지금까지 문헌자료로서, 국어학사의 한 자료로서 이용되어 오면서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東言考略’의 저자가 국어의 모든 어휘를 한자에 견강부회식으로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설명이 비과학적이라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저자는 마치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이 어휘집을 편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東言考略’의 편찬 정신과 그 記述의 방향에서 전혀 새로운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東言考略’에 보이는, 설명 대상이 되는 국어에서보다도 그 피설명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필자는 그 설명을 비록 한문으로 하면서 그리고 고유어조차도 한자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그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어로부터 기인한 한자어로 풀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역사적 사실 등으로부터 기인한 한자어로 풀이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百物之尾曰 고리者 高麗也 欲其卑下之也

각구리者 角句麗也 欲其釣取也

謂環曰 고리者 高麗也

其俗好數飲食不拘朝夕羅人惡之月曰 조전부리者 卽 朝鮮附兀也 謂啄爲附兀者 如草木花之附兀也

耽羅之初 有高乙那 夫乙那 良乙那 三西爲東韓之患 今稱可憎爲 골나 불나者 卽 高乙那夫乙那之稱也 又稱其驕放爲 랄나 者 良乙那之稱也

‘고리(꼬리)’, ‘고리’, ‘조전부리’, ‘골나 불나’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高句麗, 高麗, 朝鮮 또는 耽羅 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중에도 현재 그대로 인식되고 있는 예들도 있다.

槿曰 무궁화 者 無窮花也 花生無窮也

이러한 저술 태도에서 철저한 民族主義的 態度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술 방법은 최근의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기술 설명하는 일부 역사학자나 국어학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나 태도의 잘·잘못은 여기서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이 ‘東言考略’을

통하여 이 당시 학자들의 어휘 자료집의 편찬 자세와 國語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실학사상이 實事求是의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민족적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사전의 편찬의 동기도 이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자각은 ‘才物譜’에서 우리 나라 역사의 기록이 많아지며 ‘物名考’에서 우리의 물건에 대한 記述이 많아지고, 오히려 중국 등 외국의 것에 대해서는 그 기술이 적어지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것을 기술한 부분을 몇 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四木戲：此惟我國有之 曩世傳我國之高麗汚農爲此戲云

東京狗：동경기 我國慶州府多產短尾狗今俗見短尾狗直呼曰東京狗蓋慶州我國之東京也

白樺木：高麗史謂之水晶木 물풀레나무

愁牢節：오월수뢰 高麗方言五月五日謂之 ㄱㄱ

哮纜：高麗時人謂風爲哮纜即今人은 발람이라 아니코 발암이라 흥니라

流頭節：유월류두 新羅之俗六月十五日沐髮於東流水以辟除不祥謂之流頭節

嘉俳節：팔월가외 新羅之俗八月十五日 謂之 ㄱㄱ

草綿：면화 即 我國綿花也

木綿：一名 種花 一名 吉貝 一名 兜羅綿 목면 中國有青紅種

伽倻琴：本伽倻琴于勒所製 가야금

玄琴：검은고 新羅玉寶高鼓此琴玄島下舞故 俗名長鼓 장고

女貞 全羅道島中所產 귀송나무 與陸產異

裹肚 我國軍士衣上肚帶

이러한 自主精神은 그 物名을 해석하는 주석의 文字에서도 발견된다. ‘才物譜’와 같은 類書는 그 주석에 漢文으로 쓴 부분이 더 많으나 이 ‘物名考’類는 한글로 주석을 단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중국의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한 국어 어휘 자료집의 편찬에서 점차로 국어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어 어휘 자료집을 간행하는 자세로 변환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나 漢文보다 한글에 기준을 두고 분류한 최초의 문헌은 ‘諺音捷考’(1846년)이다. 이 ‘諺音捷考’에서는 그 釋의 한글의 가나다順

7) 이하의 자료는 ‘物名考’(서울대 가람문고, 도서번호 가람 古-031-M918a)와 ‘竹欄物名考’(가람 古 031-M918h)에서 인용한 것이다.

으로 漢字를 배열하고 있고, 또 ‘音韻捷考’(19세기로 추정)에서는 漢字音의 가나다順에 의하여 漢字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895년에 李準榮 등 우리 나라 사람에 의하여 최초로 편찬된 國漢對譯辭典인 ‘國漢會語’가 나오게 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自主的인 정신은 한글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갑오경장 이후의 國語 國文 運動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그 자주적인 정신에 불을 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7. 結 語

지금까지 실학시대의 한글 어휘 자료집의 편찬 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국어 어휘 자료집이 편찬되기에 이른 과정을 살펴 보면 漢字習得을 위하여 편찬된 국어 어휘 자료, 中國語를 이해하기 위하여 편찬된 국어 어휘 자료, 經書를 이해하기 위하여 편찬된 국어 어휘 자료, 外國語에 대한 類解書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 物名에 대한 類解書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 국어사전으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의 順으로 변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訓民正音의 創制 이후로 中國 文化의 受容에 우리 文字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우리의 文化로 變換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시초는 漢字에 대한 이해와 함께 中國語에 대한 이해로서 ‘類合’, ‘訓蒙字會’ 등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다시 中國의 儒敎文化를 수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편찬된 ‘三經四書釋義’ 등의 편찬으로 변천하여 갔다. 이것이 16세기와 17세기에까지 이행된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로 넘어 가면서 그 눈을 外國으로 돌려 漢語를 비롯한 外國의 言語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譯語類解’를 비롯한 司譯院의 類解書들이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친 후의 外交와 國防을 위해 이루어진 업적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外國語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중국의 학문 즉, 朱子學의 영향으로 語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語錄解’ 등의 자료집이 편찬되게 되었다. 이 語錄에 대한 관심을 보인 후에는 語錄에 의한 物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才物譜’, ‘物名考’ 등의 자료집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시기가 17세기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18세기 말에 와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物名考’의 全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국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國漢會語’ 등이 편찬된 것도 이 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二重:

語辭典으로부터 출발하여 多重語辭典으로, 그리고 單一語辭典으로 변천해 가도록 하였다. 즉 東洋語의 二重語辭典으로부터 東洋語의 多重語辭典으로, 그리고 西洋語의 二重語辭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標題項과 붙여 말을 국어로 하는 單一語辭典으로의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 편찬 과정을 통하여 그 편찬 정신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어휘집의 편찬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중국 한자어의 수입 과정이다. 한자어를 국어로 정착시킴으로써 해서 한자어가 국어의 語彙量을 풍부하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한자어의 유입으로 인하여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어 어휘 자료집의 편찬을 맞게 되었다. 새로운 중국 문물의 수입은 그 사물이나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나 어휘의 생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물밑듯이 들어오는 어휘들을 考證하는 일이 초기 실학 시대의 유려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다. 이것은 초기 실학 시대의 유서 편찬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우리 국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 어휘의 정리라는 움직임으로 변천하여 갔다. 이 움직임의 주조가 되는 정신은 民族主義的인 것이었다. 이 정신은 곧 自主的인 정신으로 인하여 탄생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東言考略’, ‘物名考’ 등의 국어 어휘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 정신은 그 註釋의 文字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漢文이나 漢字보다는 한글로 주석을 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여 갔고, 그것은 漢字를 표제어로 하지 않고 한글을 표제어로 하여 사전을 편찬한 19세기 말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주 정신에 입각한 實學精神은 19세기 말의 國語·國文 運動으로 그 맥을 이어 온 것으로 해석된다. 自主意識의 發露에 의한 國語意識을 確立한 것이나, 실생활에서 言文一致運動을 벌인 것 등은 그 이전 시대의 實學思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信沆(1979), 國語學史, 普成文化社.
 金敏洙(1964), 全訂版 新國語學史, 一潮閣.
 ——(1986), 國語辭典: 그 表題語의 選定과 排列問題, 국어생활 7.
 李家源(1960), ‘物譜’와 實學思想, 人文科學 5.
 李秉根(1986), 國語辭典 編纂의 歷史, 국어생활 7.
 李成茂·崔珍玉·金喜福(1990)編, 朝鮮時代 雜科合格者 總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李崇寧(1985), 韓國의 傳統的 自然觀, 서울大出版部.
- 임지룡(1989), 국어 분류 어휘집의 체계와 상관성, 國語學 19.
- 鄭 光(1978), 類解類 譯學書에 대하여, 國語學 7.
- 池斗煥(1987), 朝鮮後期 實學研究의 問題點과 方向, 泰東古典研究 3.
- 洪允杓(1985), 國語 語彙 文獻 資料에 대하여, 素堂 千時權博士 華甲紀念 國語學論叢.
- (1986), 最初の 國語辭典 '國漢會語'에 대하여, 白吳 全在吳博士 華甲紀念 國語學論叢.
- (1988), 十八·九世紀의 한글 註釋本 類書에 대하여, 周時經學報 1.